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다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마저 바꾸어 놓고 있다.

돌아보면,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성공적인 관리가 되어 오던 중, 2월 18일 31번 확진자에 의해서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이전까지 30명대였던 확진자가 31번 이후 3일 만에 100명으로 증가했다.

확인 결과 31번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1000여 명과 예배를 보았다고 한다. 예배에 참석한 이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코로나를 전파시켜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된 것이다.

31번 이외에도 신천지 교회는 독특한 예배 방식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급기야 신천지 교회 신도 중에서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신천지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의 종교 집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기성 기독교 교단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다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드는 점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장 예배를 자체해 달라는 방

역 당국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신도들에게 소금물을 주입시킨 '은혜의 강' 교회에서는 예배를 강행하여 하루에 4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만민중앙교회'에서는 4월 6일 현재 4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문제인 대통령은 간첩이다"라 말한 태극기부대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도 그가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집회 금지 명령이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자유총연맹은 신문 광고에서 "예배를 막을 권리, 국가에겐 없다"고 했다.

익산 '천광교회'의 안홍태 목사는 "예배의 소중함, 중요함, 필연성은 오늘 우리에게 두말하면 잔소리"라면서 "예배 안 드리면 저주가 찾아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날부로 코로나는 소멸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송도 '가나안 교회'의 김의철 목사는 "정부의 대처나 의학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며 황당한 설교를 했다.

한국의 기독교 목사들 모두가 이와 같이 허황한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하나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학술적 용어로

말하면 '신(神)'일 텐데, 과연 이들이 말하는 대로 과학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인가? 최근에 발견된 한 편지에서 아인슈타인은 "나에게 신이란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표현과 결과물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또 유대인인 그는 유대교에 대해서도 "나에게 유대교는 다른 종교처럼 유치한 미신의 화신"이라 말했다. 모든 종교가 미신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그의 저서 '위대한 설계'에서, "우주의 설계와 탄생 및 운행에 있어 신이 설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한 인터뷰에서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실재하지 않는다.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라고 하여 아인슈타인이 종교를 '유치한 미신의 화신'이라 한 말을 뒷받침했다.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한국의 목사들은 아인슈타인과 호킹의 말에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예배를 강행하라고 말할까? 위대한 성인(聖人)인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신도들에게 무서운 코로나의 전파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아닌가.

기고

코로나 장기전 대비하자



김삼호
광산구청장

취임 1호 결재로 '안전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행정 편의적 시각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활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 요소 및 위협 요소를 직접 점검하고, 적발된 사안은 바로 개선하도록 했다. 그 결과 생활 현장성 강화, 시민 참여 재난 대응 체계 확립, 안전 문화 운동 확산 등을 높이 평가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 안전문화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추진된 안전 광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지러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최초 확진자가 광산구에서 발생한 직후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부를 만들어 관리 감독을 일원화했다. 또한 코로나 일일 보고서를 하루 2차례 발표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의회, 공직자, 군, 기업, 상인들과 함께 발생 초기부터 대대적인 방역을 추진해 불안감 해소나 나섰다.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역과 공원에서 실시하는 발열 체크를 위해 봉사하는 한편 골목상권, 전통 시장, 산업단지, 버스 승강장 등 지역 곳곳의 방역에 동참했다. 더불어 마스크, 세정제, 쌀 등 후원 물품과 후원금 등을 기부하고 국가가 펼치는 사

회적 거리 두기에도 적극 협조하면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소독하기를 생활화하고 있다.

물질적인 모든 것이 풍족하고 과학과 의학 기술, 정보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21세기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지카, 코로나19 등을 비롯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인간과 동물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발생은 막지 못했다.

많은 학자들이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 병하 해빙 속도가 가속화되고 인간에 의한 '6차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빈번히 창궐하고, 변종 바이러스를 비롯해 고대 바이러스까지 출현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중균식'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핵무기,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불평등을 우리가 직면한 위기로 꼽았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30년 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일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선언했으며, 존 그레이는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며 "방역 최전선에 서지

않은 이들은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망이 아니더라도, 바이러스 하나가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과 달라질 미래를 시급히 준비해야 함을 체감한다. 실업, 자원 부족, 식량 및 제조업 위기, 자본과 이윤의 제한 등 이미 드러난 문제점 외에 봉쇄와 격리 이후 상황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

저마다의 처지와 어려움은 다르지만, 우리 국민은 당장의 위기를 연대와 헌신,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극복하고 있다. 입대로 인하, 선결재 등 생각지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국민을 보며, 양보하고 협력해야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

내일 치러지는 4·15 총선 결과가 어떠한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 인류 공동의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장기화로 느슨해진 국민들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을 갖고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하자. 의료진을 비롯해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지지하고 힘을기울 바라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쳐 본다.

社說

민간공원 보상금 노린 불법행위 눈감아서야

광주 지역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앞두고 곳곳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감정평가가 이뤄지기 전에 과실수를 심거나 임야를 논밭으로 바꾸 놓으면 토지 보상 때 관련 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수량·마륙·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중의 공원 등 9개 공원 부지(786만 8000㎡)의 90.3%를 공원으로 보존하고 나머지 9.7%에는 민간 개발 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때 1-2년 전부터 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공원 부지에서 보상을 노린 임야 개간이나 비닐하우스 조성, 나무 식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구 중앙공원 부지에서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지난 2018년 말부터 임야를 포클레인으로 갈아엎고 그 전에 있던 나무들을 베어 내는 대신 보상이 가능한 조

경수나 과실수 등을 촛촛히 심었다. 또 일곡공원 등에서는 애초 발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기 위해 발작물을 재배하거나 닭을 풀어놓기도 한다.

현행법은 공원 부지에서 기존에 조성된 것 이외에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또는 수목 식재 등을 금지하고 있어 이런 행위들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언제 조성됐는지 명확히 가려내기 힘든 하점을 노려 감정 평가 전 보상을 높이기 위한 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과거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것에도 행정 당국이 적극적인 단속은커녕 고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해 토지 보상금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공원 부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민간공원 내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과 단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칙칙해진 총장로 '눈치 보기 행정' 탓 아닌가

광주시 총장로가 칙칙해졌다. 기존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새로 아스콘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는 아시아문화정당 주변 도로 정비 위해 시비 5억 원을 들여 총장로 1-3가 일대 458m에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이 공사의 명칭은 '건고 싶은 총장로 가꾸기 사업'. 당국은 차량 통행 등으로 판석형 보도블록이 자주 깨져 유지 보수가 힘들다는 점을 공사 이유로 내세운다. 하지만 차량 통행 등의 근본적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도로포장만 바꾼 채 '건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다.

문화중심도시의 중심인 총장로에 확고한 정체성이나 기존 없이 상가들의 눈치만 보다가 보행자보다는 자동차에 거리를 내주고, 도로포장에 또다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공사 구간인 총장로 1-3가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명품 거리 조

성'을 목적으로 광주시가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강석 보도블록 조성 공사를 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량 통행이나 불법 주차장 난립을 막아야 했지만 상인들의 반발 탓에 이를 포기한 데 있다. 총장로 일대는 도로교통법상 차량 통행이 금지된 지역이지만 진입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무법천지가 됐다. 동구는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버려둔 채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광주시와 동구의 기준 없는 '눈치 보기 행정'이 '명품 거리' 조성 취지를 흐리고 있는 데다 '상가 활성화'라는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더 소신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상인이나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無等鼓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꽃은 또 피고 진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난히 쓸쓸했던 올봄. 길가의 뱃나무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려 매달린 흰 꽃들이 눈부시더니, 지난 주말 몰아친 비바람에 눈송이처럼 분분히 흩날리며 대지 위에 내려앉았다.

꽃은 지고 봄은 가는데,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동의하기 어려운 과한 비유이긴 하지만 '정치의 꽃은 국회의 원'이란 말이 있다. 정치적 상징성은 물론, 정권 창출의 꿈과 권력의 핵심에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과거 역대 총선에서 늘 그러했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수많은 '정치의 꽃'들이 피고 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 부는 민주당 바람은 기허 태풍이라 할 만큼 거세다. 지역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싹들이 전방마져 나오고 있다. 이에 호남 중진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바람을 온몸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막판까지 '물지 마 지지'가 아니라 '능력을 보고 투표해 달라'며 애타게 호소하고 있지만

민심의 바람은 더욱 거세지만 하다.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26.69%를 기록했다. 전남의 투표율이 35.77%로 가장 높았고 광주도 32.18%로 평균치를 훌쩍 넘겼다. 결국 선거일인 내일,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또 누군가는 눈물을 삼키며 아쉬움을 표할 것이니 앞으로 다가왔다. 동의하기 어려운 과한 비유이긴 하지만 '정치의 꽃은 국회의 원'이란 말이 있다. 정치적 상징성은 물론, 정권 창출의 꿈과 권

력의 핵심에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꽃은 잔잔히 떨어지

는 것. 시인은 꽃이 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꽃은 질 수밖에 없고 어찌면 오히려 바람이 있기에 낙화가 더욱 아름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봄이 가야 여름이 오고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다. 세상사의 단순한 이치이자 자연의 섭리다. 늘 그랬듯이 민심의 선택은 때론 냉혹한 것 같지만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 민심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tuim@

낙화

청춘 특·특

패션,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문화가 되다

많은 옷이 만들어지는 게 마냥 좋은 일일까?

패션 산업은 알려지지 않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생산 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가까이를 배출함과 동시에 전 세계 산업용 물 사용량의 20%를 사용한다.

목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도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의 2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6000만t의 옷은 30%만 팔린 채 나머지 70%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년에 약 7만 2000t의 옷이 버려진다. 이렇게 버려진 옷들은 매장되지 않은 채 소각되어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다행인 것은 환경 오염의 심각함을 깨달은 패션 업계가 친환경 패션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명 한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Patagonia)'는 현재 생산하는 모든 옷의 50%가 재생 소재이며, 오는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타고니아에서 제작하는 옷의 소재

는 최소 10년 이상 입을 수 있도록 선정된 10가지 재생 소재다. 옷 태그에도 환경 오염에 대한 메시지를 써놓고 있다.

다른 유명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또한 500ml 페트병 약 370만 개를 재활용한 '에코 플리스 컬렉션'을 선보였다. '케이투(K2)'의 경우 버려진 페트병에서 추출한 재생 폴리에스터 원사를 사용해 만든 친환경 '시그니처 플리스 재킷'을 출시했다.

이렇듯 다양한 의류 브랜드에서 친환경 소재 개발과 재사용 가능한 의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옷은 비싼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SPA 브랜드인 'H&M'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으로 내놓은 '컨셔스 라인(conscious line)'은 전부 십만원이 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환경과 가성비

를 동시에 챙긴 것이다. 소비자들도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하고 있다. 자연에서 분해되는 재료로 만드는 친환경 가방인 에코백과 씻어서 사용 가능한 텀블러

는 지난 몇 해 동안 유행을 넘어서 한 번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처리하는 방법도 친환경적으로 바뀌었다. 매년 많은 양의 옷과 가방, 신발 등이 기부 물품으로 들어오며 인터넷을 통한 중고 거래 또한 활발하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아빠다 운동(야껴쓰고 나뉘쓰고 바뀌쓰고 다시 쓰고 운동)'의 재탄생이다.

이뿐만 아니다. 소비자는 가정에서 친환경 세제를 쓴다. 모두가 알다시피 세제는 환경 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특히 섬유를 부드럽게 하고 좋은 향기가 나게 하는 섬유 유연제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사실이 퍼지자 각종 업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는 세제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인간의 욕심은 자연의 파괴로 돌아온다. 패션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패션을 선보이는 건 어떨까? 명품을 두르거나 화려한 색으로 치장하지 않고, 친환경 소재와 재생 가능한 옷을 입고 있는 당신이 더 멋진 패션의 선두 주자다.

無等鼓	
<p>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꽃은 또 피고 진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난히 쓸쓸했던 올봄. 길가의 뱃나무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려 매달린 흰 꽃들이 눈부시더니, 지난 주말 몰아친 비바람에 눈송이처럼 분분히 흩날리며 대지 위에 내려앉았다.</p> <p>꽃은 지고 봄은 가는데,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동의하기 어려운 과한 비유이긴 하지만 '정치의 꽃은 국회의 원'이란 말이 있다. 정치적 상징성은 물론, 정권 창출의 꿈과 권력의 핵심에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p> <p>과거 역대 총선에서 늘 그러했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수많은 '정치의 꽃'들이 피고 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 부는 민주당 바람은 기허 태풍이라 할 만큼 거세다. 지역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싹들이 전방마져 나오고 있다. 이에 호남 중진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바람을 온몸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막판까지 '물지 마 지지'가 아니라 '능력을 보고 투표해 달라'며 애타게 호소하고 있지만</p>	<p>민심의 바람은 더욱 거세지만 하다.</p> <p>이를 반영하듯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26.69%를 기록했다. 전남의 투표율이 35.77%로 가장 높았고 광주도 32.18%로 평균치를 훌쩍 넘겼다. 결국 선거일인 내일,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또 누군가는 눈물을 삼키며 아쉬움을 표할 것이니 앞으로 다가왔다. 동의하기 어려운 과한 비유이긴 하지만 '정치의 꽃은 국회의 원'이란 말이 있다. 정치적 상징성은 물론, 정권 창출의 꿈과 권</p> <p>력의 핵심에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p> <p>꽃은 잔잔히 떨어지는 것. 시인은 꽃이 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꽃은 질 수밖에 없고 어찌면 오히려 바람이 있기에 낙화가 더욱 아름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봄이 가야 여름이 오고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다. 세상사의 단순한 이치이자 자연의 섭리다. 늘 그랬듯이 민심의 선택은 때론 냉혹한 것 같지만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 민심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tuim@</p>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